

## 사회적 거리와 정서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ocial distance and mood on moral judgment

— focusing on moral dilemmas

현주하\*\* · 엄기민\*\* · 한광희\*\*\*†

Juha Hyun\*\* · Kimin Eom\*\* · Kwanghee Han\*\*\*†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Graduate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Abstract

Morality is one of the references when people judge the world. In two studies we addressed the impact of social distance and mood on moral judgment. Participants judged the people who kill one person to save the many by moral and action appropriateness. In study 1 Social distance was induced in best friends and strangers condition. We hypothesized that judgments rely on deontology depends on social distance. Study 1 showed that same actions in moral dilemmas are judged more severely when the people are more socially distant(strangers). But this effect of social distant was found only judgment of moral appropriateness. Study 2 examined how mood can affect moral judgment. There have been many work investigated the role of mood in determining the kind of cognitive processing. Results from study 2 showed participants in positive mood condition are judged more severely. This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mood was found only judgment of action appropriateness in contrast with study 1.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oral judgment can be affected by social distance and mood. We also found that these factors have selected impact on moral and action appropriateness.

**Keywords** : Moral dilemma, Moral Judgment, Social distance, mood

### 요약

본 연구는 ‘자아’와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와 사고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유발된 정서가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도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1은 딜레마 속 행위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 및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도 낯선 사람보다 자신과 가까운 대상이 했을 때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덜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도덕성의 판단 차이는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행동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유발된 정서에 따라 딜레마 속 행동에 대한 도덕성 및 행동 적

\* 이 논문은 BK21사업(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한광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khan@yonsei.ac.kr

TEL : 02-2123-2442

FAX : 02-2123-4723

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실험 결과, 정서의 쾌-불쾌 차원은 도덕성을 가늠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와 정서에 따라 도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도 한 두 종류의 딜레마 모두에서 사람들이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을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판단, 사회적 거리, 정서

## 1. 서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으며 살아간다.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들 중에 하나는 도덕의 잣대를 사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일 특정 행위가 도덕적 규범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가늠하여 결정한다면, 이는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의무론(deontology)의 도덕 논리를 따르는 것이고,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내는지 살펴보고 결정하였다면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입장은 규범적 윤리에 있어 두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경우 이 두 입장은 일치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방법이 의무론의 제약을 어겨야 하는 경우, 결과주의는 의무론의 논리와 대립하게 된다. 행위자가 앞서 말한 의무론과 결과주의 각각을 선택해야만 하는 도덕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나, 어느 한 쪽의 요구사항도 다른 요구사항을 압도하지 못하는 도덕적 갈등을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moral dilemma)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견, 즉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는 의사결정을 도덕 판단(moral judgmen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sup> 가장 넓은 범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는 Foot의 노면전차의 문제(trolley problem)<sup>2)</sup>와 Thomson의 인도교의 문제(footbridge problem)<sup>3)</sup>이다. 사람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노면 전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인도교의 문제와 같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에

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sup>4)5)</sup> 왜 사람들은 다섯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희생하는 표면적으로 유사한 이 두 딜레마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 Greene과 동료들의 연구는 개인적 딜레마(personal dilemma)를 판단할 때에는 정서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비개인적인 딜레마(impersonal dilemma)에서는 추론과 작업 기억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혔다.<sup>6)7)</sup>

이는 도덕적 딜레마가 성격에 따라 다른 처리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근래의 연구에서는 딜레마 시나리오의 속성을 조정하는 시도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향이나 작업 기억용량과 같은 개인차 변인이 개인적 혹은 비개인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의사결정자가 가진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의 양식이 달라졌을 때에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거리를 통해 의사결정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거나 유발된 정서에 의해 사고양

1)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2) Foot, P. (1967).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Oxford Review*, 5, 5-15.

3) Thomson, J. J. (1985). The trolley problem. *Yale Law Journal*, 94(6), 1395-1415.

4)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s: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2), 1082-1089.

5)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3), 247-253.

6) Greene, J.D., Nystrom, L.E., Engell, A.D., Darley, J.M., & Cohen, J.D. (2004).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Neuron*, 44(2), 389-400.

7)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 Cohen, J.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14), 2105-2108.

8) Adam B. M., Brian A. C., and Michael J. K..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6), 549-557.

식이 영향을 받았을 때 도덕적 딜레마에서 도덕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2. 심리적 거리와 도덕 판단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표상의 체계로 의사결정의 주체인 ‘자아’로부터의 주관적인 거리를 말한다.<sup>9)</sup> 구성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 사건은 보다 상위 구성 수준에서 표상되며 관념적, 추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하위 구성 수준으로 표상된다.<sup>10)</sup>

구성 수준 이론은 도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대상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에는 상황의 추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동시에 상황적 맥락과 같은 구체적인 속성 혹은 부차적인 정보에는 주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성 수준 이론은 일반적이고, 상황 요소를 배제한 도덕 원칙들, 즉 의무론의 도덕률을 상위 구성 수준으로 간주하고 사건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무론에 부합하는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 ‘살인은 나쁘다’와 같은 단순 명료한 결론을 내리는 도덕적 휴리스틱(moral heuristic)을 사용하는 반면,<sup>11)</sup>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 혹은 맥락에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도덕적 휴리스틱에서 벗어나 덜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sup>12)</sup>

Eyal과 동료들의 연구는 이러한 구성 수준 이론의 가정을 도덕률에 어긋나거나 부합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sup>13)</sup>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를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혹은 사촌들끼리 키스를

나누는 것 등과 같은 사회적 금기 행동들에 대해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 즉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며 판단을 내린 참가자들은 동일한 행동을 타인이 했을 때 보다 도덕률을 어긴 정도가 덜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장애가 있는 아기를 입양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거리가 현재와 멀어질수록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 근거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질 때 도덕적인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덜 도덕적이라고 반응하고, 도덕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보다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정서와 도덕 판단

정서는 판단이나 평가와 같은 인지과정에 있어 하나의 정보로서의 역할을 한다.<sup>14)</sup>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느껴지는 정서가 긍정적인가 혹은 부정적인가에 따라 판단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정서가 판단에 있어 단서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정서를 포함하는 도덕적 직관(moral intuition)은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15)</sup> 메스꺼운(disgust) 냄새에 노출되거나 지저분한 실험실에 배정된 참가자들은 메스꺼운 정도가 덜하거나 없는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주어진 이야기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sup>16)</sup> 이처럼 흔히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일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sup>17)</sup>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믿음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서가 도덕 판단에 있어 ‘정서 일치 효과’만을 가질 것이라는 결론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9) 김현지 (2008). 심리적 거리가 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 청구 논문

10)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11) Sunstein, C. R. (2005). Moral heuristic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8(4), 531-573.

12) Baron, J., & Leshner, S. (2000). How serious are expressions of protected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6(3), 183-194.

13) Eyal, T, Liberman, N & Trope, Y. (2007). Judging near and distant virtue and v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4), 1204 - 1209.

14)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13-5.

15)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moral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16) Schnall, S. Haidt, J., Clore, G. L., Jordan. A.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8), 1096-1109.

17) Prinz, J. (2006). The emotional basis of moral judgments, *Philosophical Explorations*, 9(1), 29-43.

긍정 혹은 부정의 정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사고 양식과 관련을 가지는 것 같다. 사회적 판단을 다룬 연구들에서 행복한 정서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사고와의 연관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유발된 참가자들은 정보 자체의 질보다는 설득자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전문성과 같은 휴리스틱 단서들에 의지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sup>18)</sup> 또한 긍정적 정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19)</sup> 이러한 결과에 대해 Mackie와 Worth는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정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리가 비효율적이 되어 결국 설득자의 전문성과 같은 단서들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에서는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양의 긍정적 요소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 정서는 정보에 대한 깊고 분석적인 처리를 유발하고, 주의 분산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정서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용성에 영향을 준다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의 가용성 측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Bless와 동료들은 사람들이 긍정적 정서를 느낄 때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래 지니고 있는 일반 지식 구조(general knowledge structure)에 의존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고 일반 지식 구조에 의존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므로 상황적, 세부적 정보에 더 초점을 둔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이처럼 정서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처리 방식이 두드러진다면 도덕성을 판단

하는 데 있어서도 참가자가 어떠한 정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 4.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도덕적 딜레마를 판단하는 주체, 즉 딜레마 밖에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의 방식이 달라졌을 때 개인적 혹은 비개인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덕 판단에 있어 의무론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사건이나 행위가 도덕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도덕률에 벗어나는 것일 때에는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구성 수준 이론의 가정을 따른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때 비개인적 딜레마는 더 도덕적이라고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개인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덜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과 친밀한 정도 즉 심리적 거리 중 사회적 거리를 중심으로 딜레마의 종류에 따라 타인에 대한 도덕 판단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유발된 정서가 사고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에 유발된 정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서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판단에 다른 영향을 주며,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을 고려해 본다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에는 정서 일치 효과, 즉 긍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개인적 딜레마와 비개인적 딜레마 모두에 대해 부정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지적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에서는 딜레마들에 대해 도덕적 휴리스틱 즉 ‘살인은 나쁘다’와 같은 의무론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는 반면 부정적 정서에서는 깊고 분석적인 사고의 특징 때문에 어떠한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는 결과주의에 가까운 판단을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상충되는 두

18) Schwarz, N., Bless, H., & Bohner, G. (1991). Mood and persuasion: Affective states influence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pp. 161-19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9) Bodenhausen G. V. ; Sheppard L. A. ; Kramer G. P. (1994). Negative affect and social judgment: the differential impact of anger and sad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45-62.

20) Bless, H., Bohner, Q, Schwarz, N., & Strack, F. (1990). Mood and persuasion: A cognitive respons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331-345.

21) Bless, H., Clore, G. L., Schwarz, N., & Golisano, V., Rabe, C., & Wolk, M. (1996). Mood and the User of Scripts: Does a Happy Mood Really Lead to Mind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665-679.

예측 가운데 어느 것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간 이루어진 딜레마에서의 도덕 판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은 경우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도덕성을 측정해 왔다. 하지만 Nichols와 Mallon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률을 어긴 것과 행동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분한다.<sup>22)</sup> 그들의 연구는 참가자들이 도덕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무론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반면, 행동의 적합성을 물을 때에는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결과주의의 입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개인적 딜레마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도덕 판단에 있어 그 반응을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 5. 실험1

사회적 거리와 도덕적 딜레마의 종류가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1이 진행되었다. 판단 대상의 사회적 거리(2: 친한 친구 vs. 낯선 이)×도덕적 딜레마의 종류(2: 개인적 딜레마 vs. 비개인적 딜레마)의 혼합 설계로 사회적 거리는 참가자 간, 도덕적 딜레마의 종류는 참가자 내 설계가 적용되었다.

### 5.1. 실험방법

#### 5.1.1. 실험 참가자

연세대학교에서 74명의 학부생들(남성 27명, 여성 47명, 평균연령 21세)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의 두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제시되는 시나리오 속 주인공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얼마나 적합한지를 각각 판단하였다.

#### 5.1.2. 실험 도구 및 자극

도덕적 딜레마의 시나리오는 Adam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덕적 딜레마 리스트를 사용하였

다.<sup>23)</sup> 이 리스트는 Greene과 동료들이 사용했던 딜레마의 시나리오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sup>24)</sup> 기존 시나리오에서 개인적 딜레마는 피해자의 죽음이나 증상이 발생하는 반면, 비개인적 딜레마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절도를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딜레마 간 불균형적이었던 이러한 속성은 모든 딜레마가 다수를 구하기 위해 한 명의 사람을 죽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으며, 죽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얼마나 직접적인가를 기준으로 개인적 딜레마와 비개인적 딜레마를 구분하였다. 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개인적 딜레마는 스위치나 레버와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여 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도록 하였다. 도덕적 딜레마 리스트 중 개인적 딜레마와 비개인적 딜레마의 시나리오 각각 8개와 딜레마가 아닌 시나리오(filler) 4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판단 대상의 사회적 거리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시나리오에서 1인칭이었던 부분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친한 친구의 이름이 제시되었고, ‘먼 사회적 거리 조건’에서는 낯선 사람의 이름이 제시되었다. 딜레마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Horton은 구조 헬리콥터에 유일한 응급의료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조 헬리콥터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Horton과 조종사, 그리고 구조된 사람들의 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폭발한다면, Horton을 포함한 헬리콥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부상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헬리콥터 밖으로 던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는 헬리콥터의 추락을 막기에는 충분한 무게를 덜어 줄 것이지만, 헬리콥터 밖으로 던져진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참가자가 Horton이라는 낯선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먼 사회적 거리 조건’임과 동시에

23) Adam B. M., Brian A. C., and Michael J. K..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6), 549-557.

24)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 Cohen, J.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14), 2105-2108.

22) Nichols, S., Mallon, R. (2006). Moral dilemmas and moral rules. *Cognition*, 100(3), 530-542.

다수의 답송자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개인적 딜레마’에 해당한다.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비개인적 딜레마’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Horton과 다섯 명의 사람들은 화재가 난 건물 안에 갇혀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오직 하나뿐이지만 불타는 잔해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Horton은 비상구로 연결된 복도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한 채로 출구 밑의 작은 구멍으로 피난하기 위해 기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Horton과 그의 뒤를 따르는 다섯 명의 사람에게는 그 작은 구멍을 따라 올라갈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복도의 긴급 시스템은 복도의 산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불을 끄게 되어 있고, Horton은 근처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불은 꺼지겠지만, 그 부상당한 사람은 질식사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Horton과 당신을 뒤따르는 다섯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사회적 거리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어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유도’의 절차를 거친다. 딜레마 속 주인공의 사회적 거리를 조작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친한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백 번째까지 머릿속으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1분이 지난 후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도록 하였고,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앞으로 읽게 될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던 백 번째 사람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라는 지시문이 제공되었다. 이후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적은 가장 친한 3명의 이름이 딜레마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제시되었고,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은 Horton 등의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 주인공으로 대체되었다.

### 5.1.3. 실험절차

사회적 거리 조작의 단계를 거친 참가자들은 무선으로 제시되는 20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도덕적 적절성과 행동 적합성을 각각 9점 척도로 답하였다. 앞서 예로 들었던 딜레마 시나리오의 경우, “Horton이

자신과 다른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상자 중 한 명을 헬리콥터 밖으로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은 도덕적입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도덕성을 측정하였으며, 행동 적합성은 “Horton이 자신과 다른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상자 중 한 명을 헬리콥터 밖으로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입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9점(매우 그렇다)으로 환산되었으며, 한 시나리오의 모든 문장이 제시되고 나면 도덕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동 적합성을 묻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 시작 전에 각 문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즉, ‘도덕적입니까?’에 대해서는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판단을 ‘적절한 행동입니까?’에 대해서는 결과주의에 근거한 판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 판단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판단에 확신이 들 때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지시하였다. 반응시간의 측정은 참가자들이 도덕적 판단 시, 인지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려움이나 대립(conflict)을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포함되었다. 의사결정에서 긴 판단시간은 의사결정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대립(conflict)과 관련되기 때문이다.<sup>25)</sup> 20개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나면, 사회적 거리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과 실제 얼마나 친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하셨습니까?”라는 문항에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

## 5.2. 결과

사회적 거리에 대한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 $M = 6.32$ ,  $SD = .842$ )은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 $M = 2.08$ ,  $SD = 1.131$ )보다 시나리오의 주인공에 대해 더 친한 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1,72) = 336.012$ ,  $p < .001$ ,  $\eta^2 = .824$ . 이후 참가자가 수행한 20개 시나리오 중 도덕적 딜레마가 아

25)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41-156.

년 4개의 시나리오(filler)를 제외한 16개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혼합 변량 분석(Mixed ANOVA)을 수행하였다.

5.2.1. 도덕성 판단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거리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72) = 4.083, p < .05, \eta^2 = .054$ . 즉,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 $M = 3.026, SD = 1.275$ )은 다수를 위해 한사람을 희생시키는 행동에 대해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 $M = 2.340, SD = 0.979$ )보다 도덕성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그림 1). 또한 딜레마의 종류에 따른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F(1, 72) = 4.354, p < .05, \eta^2 = .057$ . 도덕적 딜레마 속 주인공이 제3자라고 하더라도 1인칭이었던 기존연구(26)와 동일하게 도덕성에 있어 개인적 딜레마( $M = 2.503, SD = 0.946$ )는 비개인적 딜레마( $M = 2.692, SD = 1.184$ )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와 딜레마 종류의 상호작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72) = 6.820, p < .05, \eta^2 = .087$ . 즉, 비개인적 딜레마에 대한 도덕성 판단은 두 사회적 거리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F(1, 72) = 6.668, p < .05, \eta^2 = .085$ , 개인적 딜레마에 대한 도덕성 판단은 두 사회적 거리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걸린 반응시간의 조건 간 차이나 상호작용은 없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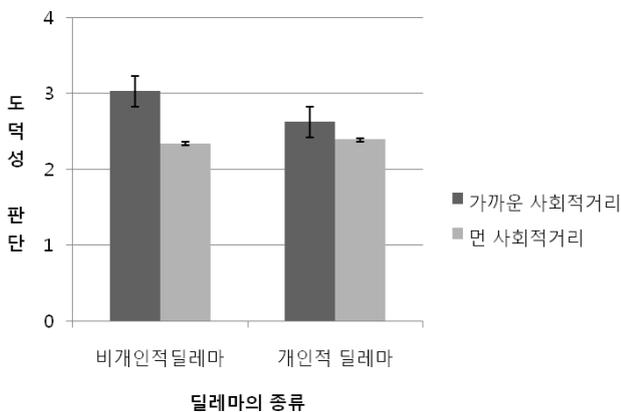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거리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도덕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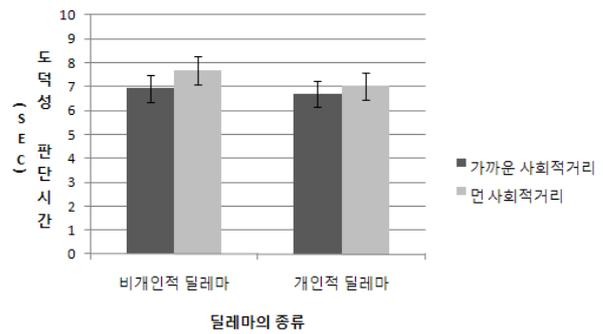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거리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도덕성 판단시간

5.2.2. 행동 적합성 판단

참가자들은 다수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딜레마 속 행동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을 때, 딜레마의 종류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그림 3),  $F(1, 72) = 26.574, p < .001, \eta^2 = .270$ . 즉, 비개인적 딜레마( $M = 5.076, SD = 1.385$ )는 개인적 딜레마( $M = 4.585, SD = 1.363$ )보다 행동 적합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거리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조건 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걸린 반응시간 또한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나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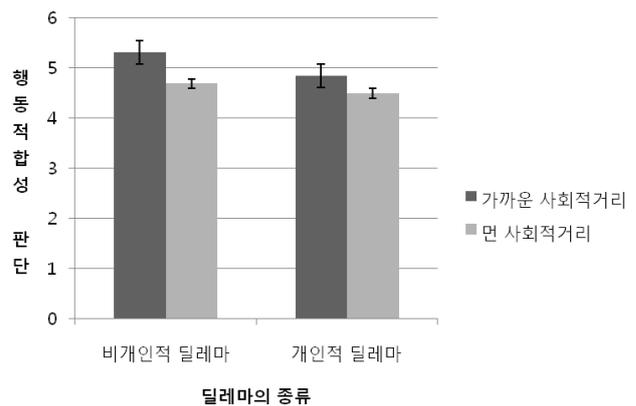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거리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행동 적합성 판단

26) Adam B. M., Brian A. C., and Michael J. K..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6), 549-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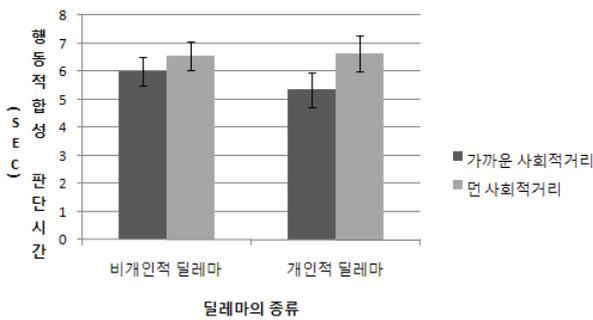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거리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행동 적합성 판단 시간

### 5.3. 논의

실험 1에서는 딜레마 종류와 딜레마 속행위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도덕성 및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 모두에서 딜레마 종류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를 위해 희생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이 직접적인가 혹은 간접적인가에 따라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내려지지만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반면 그 행동이 적합한 것이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도덕성의 판단 차이가 개인적 딜레마보다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해를 가하는 방식이 직접적일 때에는 사회적 거리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일 때에는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의 판단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연구가설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비개인적 딜레마는 더 도덕적이라고 반응하는 반면 개인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덜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사회적 거리 조건에 따른 도덕성 판단에서 차이가 없었던데 반해, 같은 행동이라도 비개인적 딜레마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더 엄격한 판단, 즉 덜 도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개

인적 딜레마의 도덕성 수준이 도덕적 딜레마를 다룬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판단하였던 비개인적 딜레마가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sup>27)28)</sup> 즉,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한 사람을 희생하여 다수를 구하는 것 역시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 때 의무론에 준하여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물에 어긋난다고 평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참가자 집단이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특성 상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인 문화 차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또는 내집단 편파(in-group bias)에 의한 결과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집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sup>29)</sup> 비개인적 딜레마에 대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을 일종의 내집단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개인적 딜레마에서 두 조건 간 차이가 없는 것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내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두 종류의 딜레마 모두 도덕성에 비해 행동 적합성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도덕물을 어긴 것과 행동의 적합성을 구분한다는 Nichols와 Mallon의 연구 결과를 개인적 딜레마와 비개인적 딜레마 모두에서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sup>30)</sup> 또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판단 차이가 도덕성에

27)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s: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2), 1082-1089.

28)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3), 247-253.

29)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0.

30) Nichols, S., Mallon, R. (2006). Moral dilemmas and moral

서는 나타나지만 행동 적합성에서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도덕성과 행동의 적합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6. 실험 2

실험 2는 정서와 딜레마의 종류가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참가자에게 유발된 정서(2: 긍정 vs. 부정)×도덕적 딜레마의 종류(2: 개인적 딜레마 vs. 비개인적 딜레마)의 혼합 설계로 정서는 참가자 간, 도덕적 딜레마의 종류는 참가자 내 설계가 적용되었다.

### 6.1. 실험방법

#### 6.1.1. 실험 참가자

연세대학교 38명의 학부생들(남성 18명, 여성 20명, 평균연령 20세)이 실험1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되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긍정적 정서 조건에 19명(남: 10, 여: 9), 부정적 정서 조건에 19명(남: 8, 여: 11)씩 할당되었다.

#### 6.1.2. 실험 도구 및 자극

실험 1의 먼 사회적 거리의 조건에서 사용되었던 20개의 동일한 딜레마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시나리오는 대상과 연관된 정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정서도 참가자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 대상에 대한 정서의 개입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시나리오를 과제로 선택하였다.

정서 유발을 위해 Wood와 동료들의 연구<sup>31)</sup>에서 사용된 고전 음악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은 Bach의 Brandenburg Concerto No. 3을, 부정적 정서 조건에서는 Prokofiev의 Russia under the Mongolian Yoke를 1분 30초 동안 감상하였다. 효과적

rules. *Cognition*, 100(3), 530-542.

31) Wood, J. V., Saltzberg, J. A. & Goldsamt, L. A. (1990). Does affect induce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99- 908.

인 정서 유발을 위해 참가자들은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면서 조건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인 자전적 경험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기 기술은 Strack와 동료들이 효과적인 정서 유발을 위해 제안한 방법이다.<sup>32)</sup>

정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된 참가자들이 해당 조건의 정서가 의도대로 유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음악을 들은 이후의 정서 상태를 Lang이 제작한 SAM(Self Assessment Manikin)에 체크하도록 하였다.<sup>33)</sup> SAM은 정서의 두 가지 차원인 쾌-불쾌 차원과 각성이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은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6.1.3. 실험절차

참가자들은 해당 정서 조건의 음악을 이어폰을 통해 들으면서 자전적인 경험에 대한 기술을 한 후, 정서 측정 도구 SAM을 통해 정서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서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이전 연구들<sup>34)35)</sup>에서 정서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와 동일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험 1과 동일하게 무선으로 제시되는 20개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을 9점 척도로 답하였다. 실험의 모든 과정은 약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정서 조작 절차 후 과제를 완료하기까지 약 20분가량 소요되었다.

## 6.2. 결과

음악을 통한 정서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SAM에 대하여 이원 변량 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한 결

32) Strack, F., Schwarz, N., & Gschneidinger, E. (1985). Happiness and reminiscing: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mood, and mode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6), 1460-1469.

33) Lang, P.J. (1985). *The Cognitive Psycho-Physiology of Emotion: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34) Bless, H., Clore, G. L., Schwarz, N., Golisano, V., Rabe, C., & Wolk, M. (1996). Mood and the use of scripts: Does a happy mood really lead to mind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65-679.

35) DeSteno, D., Petty, R. E., Rucker, D. D., Wegener, D. T., & Braverman, J. (2004). Discrete Emotions and Persuasion: The Role of Emotion-Induced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43-56.

과 쾌-불쾌 차원에서 긍정적 정서 조건(M = 6.47, SD = 1.867)의 참가자들은 부정적 정서 조건(M = 3.37, SD = 1.802)의 참가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36) = 27.219, p < .001, \eta^2 = .431$ . 하지만 각성-이완 차원에서 긍정 정서(M = 3.32, SD = 1.235)와 부정 정서(M = 3.54, SD = 1.352)의 조건 간 차이는 없었다. 실험 2 역시 참가자가 수행한 20개 시나리오 중 도덕적 딜레마에 해당하는 16개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혼합 변량 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정서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6.2.1. 도덕성 판단

도덕성을 판단함에 있어 딜레마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 36) = 6.195, p < .05, \eta^2 = .147$ . 즉, 참가자들은 비개인적 딜레마(M = 2.325, SD = .909)의 도덕성에 대해 개인적 딜레마(M = 2.118, SD = .768)보다 좀 더 높게 판단하였다(그림 5). 하지만 정서의 주효과나 정서와 딜레마 종류 간의 상호작용, 판단에 걸린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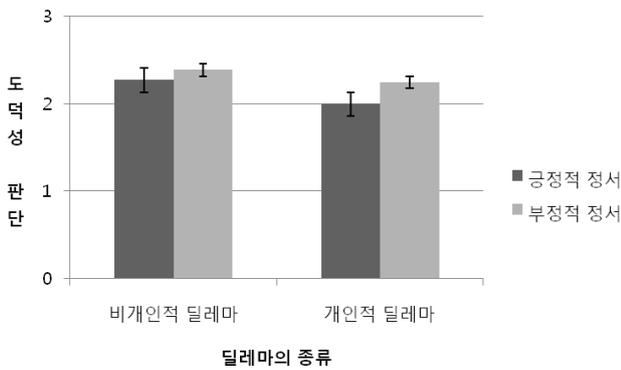


그림 5. 정서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도덕성 판단

6.2.2. 행동 적합성 판단

행동 적합성에서도 비개인적 딜레마(M = 5.276, SD = 1.260)는 개인적 딜레마(M = 4.523, SD = 1.231)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36) = 21.463, p < .001, \eta^2 = .374$ . 그리고 정서에 따른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F(1, 36) = 10.405, p < .01, \eta^2 = .224$ . 부정적 정서 조건(M = 5.434, SD = 1.38)에서 긍

정적 정서 조건(M = 4.365, SD = .938)보다 도덕적 딜레마 속 행동에 대해 적합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그림 6). 정서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행동 적합성 판단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정서 조건이나 딜레마 종류에 따라 행동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1, 36) = 8.358, p < .01, \eta^2 = .188$ .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가 행동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시간에 있어 딜레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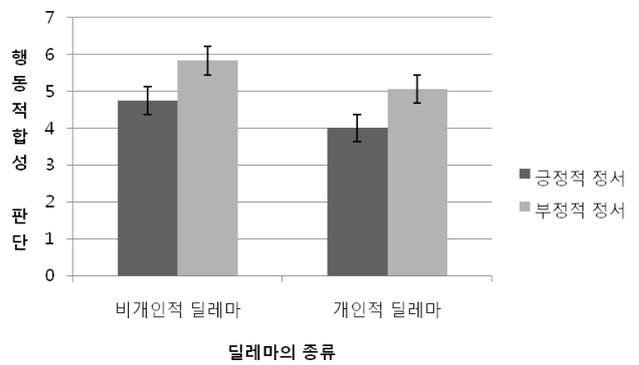


그림 6. 정서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행동 적합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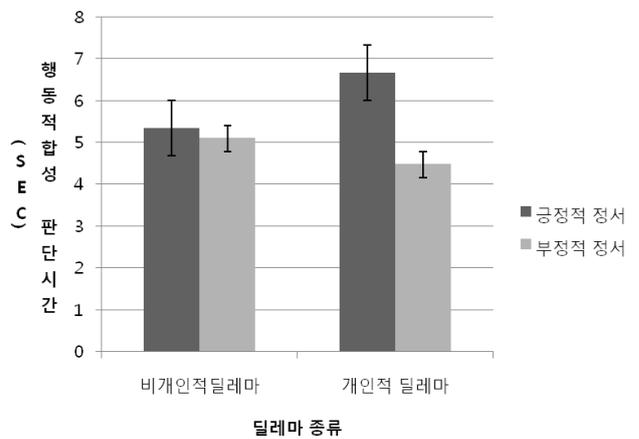


그림 7. 정서와 딜레마 종류에 따른 행동 적합성 판단시간

6.3. 논의

실험 2에서는 딜레마 종류와 정서에 따라 딜레마 속 행동에 대한 도덕성 및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서는 ‘emotion’보다는 ‘mood’의 개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Emotion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강하고 즉각적인 정서 반응을, mood는 보다

일반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정서 반응을 의미하는데,<sup>36)</sup>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자전적 경험 기술을 통해 일반적인 정서반응을 유발하였고 그것이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은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 모두에 대해 비개인적 딜레마보다 개인적 딜레마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정서의 쾌-불쾌 차원은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행동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기제 중 하나는 부정적 정서가 깊고 분석적인 처리를 유발하는 반면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 상태에서는 휴리스틱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37)</sup> 긍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이 도덕적 휴리스틱 즉 의무론에 가까운 판단을 보였던 반면, 분석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부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결과주의의 관점에 준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판단하는 시간에 있어 딜레마 종류와 정서에 따른 차이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동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걸린 반응시간에서는 정서와 딜레마 종류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정서 간 반응시간의 차이가 개인적 딜레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긍정적 정서 조건에서의 판단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개인적 딜레마의 경우 의무론과 결과주의 간에 조정해야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추론과정에서 반응의 지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유발된 정서와 딜레마 자체가 가지는 정서의 불일치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험 2역시 두 종류의 딜레마 모두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도덕성을 묻는 문항을 행동 적합성과 구분하

여 엄격하게 판단했다. 정서에 따른 판단의 차이는 행동 적합성에 대해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행동 적합성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 7. 종합논의

본 실험은 사회적 거리와 정서가 도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알아보았다. 도덕 판단을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거리와 정서가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의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실험 1에서는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내려지지만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판단 대상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다수를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키는 행동의 도덕성에 대해 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행동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도덕성의 판단 차이는 개인적 딜레마보다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회적 거리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이 자신과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비개인적 딜레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했던 것에 근거하여,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 때 비개인적 딜레마에서의 판단은 덜 엄격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전예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sup>38)39)</sup> 하지만 도덕성에 대한 판단 점수가 개인적 딜레마뿐만 아니라 비개인적 딜레마에서도 낮았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참가자들은 비개인적 딜레마 역시 도덕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까운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가자들은 비개인적 딜레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정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먼 사회적 거리 조건의 참

36) Isen, S. M. (1984).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pp. 179-236). Hillsdale, NJ, Erlbaum.

37) Schwarz, N., Bless, H., & Bohner, G. (1991). Mood and persuasion: Affective states influence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pp. 161-19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38)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s: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2), 1082-1089.

39)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3), 247-253.

가자들보다 덜 엄격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전 연구(40)에서 사용된 비개인적 딜레마의 시나리오로 대체하여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 때 덜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 2에서는 딜레마 속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가 분석적인 인지처리를 이끄는 반면 긍정적 정서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사고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밝힌 선행 연구들(41)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가진다. 긍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은 도덕적 휴리스틱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부정적 정서 조건의 참가자들은 보다 결과주의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론은 직관과 관련 있으며, 공리주의 혹은 결과주의는 숙고와 연관을 가진다는 이중 처리 모델의 가정을 음악을 통한 정서 유발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험 2에서는 행동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서의 주효과뿐만 아니라 정서 간 판단을 내리는 시간의 차이가 개인적 딜레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다. 첫째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무론과 결과주의 간의 대립에 의해 판단이 느려졌다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에서 판단의 단서로 사용되었다고 가정되는 의무론은 한 명을 희생시켜서 다수를 구하는 행동이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결과주의 입장과 보다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도덕적 요구사항 간의 입장 차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개인적 딜레마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고 이로 인해 추론과정에서 반응의 지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음악을 통해 유발된 정서와 딜레마 자체가 유발하는 정서의 차이에 의해 판단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Greene과 동료들의 연구는 개인적 딜레마에 대하여 허용 가능하다고 반응한 참가자들의 경우 반응시간이 느렸으며 이는 개인적 딜레마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인 정서와 행위를 용인하려는 판단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42) 이처럼 개인적 딜레마가 가지는 부정적 정서는 판단에 관여하게 되는데 유발된 긍정적 정서와의 불일치 효과(incongruent effect)에 의해 그 판단이 느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험 1과 2 모두에서 딜레마의 종류에 따른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딜레마 모두 행동 적합성은 도덕성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도덕률에 부합하는 것과 행동이 적합한 것인지에 판단을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는 도덕성 판단에 영향을 주고, 정서는 행동 적합성의 판단 차이를 이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딜레마를 개인적 딜레마와 비개인적 딜레마로 구분하여 딜레마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거리와 정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두 딜레마 모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와 정서라는 변인이 미치는 효과를 해석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해당 변인들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덕성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도덕적입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해당 문항의 의도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옳은지를 묻기 위함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행위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더 명확한 문항의 사용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도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행동규범이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도덕에 준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도덕적

40)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 Cohen, J.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14), 2105-2108.

41) Schwarz, N., Bless, H., & Bohner, G. (1991). Mood and persuasion: Affective states influence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4, pp. 161-19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42)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 Cohen, J.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14), 2105-2108.

판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기보다 도덕적 요구사항들 간의 대립 과정에서 결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의무론과 결과주의 충돌과 조절은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의무론과 결과주의의 판단이 각각 사회적 거리와 정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현지. (2008). 심리적 거리가 사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Adam B. M., Brian A. C., and Michael J. K.. (2008). Who Shalt Not Kill?: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Executive Control,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19(6), 549-557.
- Baron, J., & Leshner, S. (2000). How serious are expressions of protected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6(3), 183-194.
- Bless, H., Bohner, Q, Schwarz, N., & Strack, F. (1990). Mood and persuasion: A cognitive response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331-345.
- Bless, H., Clore, G. L., Schwarz, N., Golisano, V., Rabe, C., & Wolk, M. (1996). Mood and the use of scripts: Does a happy mood really lead to mind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65-679.
- Bodenhausen G. V. ; Sheppard L. A. ; Kramer G. P. (1994). Negative affect and social judgment: the differential impact of anger and sad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1), 45-62
- Cushman, F., Young, L., & Hauser, M. (2006). The role of conscious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judgments: Testing three principles of harm. *Psychological Science*, 17(2), 1082-1089.
- DeSteno, D., Petty, R. E., Rucker, D. D., Wegener, D. T., & Braverman, J. (2004). Discrete Emotions and Persuasion: The Role of Emotion-Induced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 43-56.
- Eyal, T, Liberman, N & Trope, Y. (2007). Judging near and distant virtue and v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4), 1204-1209.
- Foot, P. (1967).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Oxford Review*, 5, 5-15.
- Greene, J.D., Nystrom, L.E., Engell, A.D., Darley, J.M., & Cohen, J.D. (2004). The neural bases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trol in moral judgment. *Neuron*, 44(2), 389-400.
-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 Cohen, J.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14), 2105-2108.
- Isen, S. M. (1984).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79-236). Hillsdale, NJ, Erlbaum.
- Lang, P.J. (1985). *The Cognitive Psycho-Physiology of Emotion: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ackie, D. M., & Worth, L. (1989). Processing deficits and the mediation of positive affect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1), 27-40.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141-156.
- Nichols. S., Mallon. R. (2006). Moral dilemmas and moral rules. *Cognition*, 100(3), 530-542.
- Prinz. J. (2006). The emotional basis of moral judgments, *Philosophical Explorations*, 9(1), 29-43.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Schwarz, N., Bless, H., & Bohner, G. (1991). Mood and persuasion: Affective states influence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161-19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chwarz, N., & Clore, G. L. (1983). Mood, misattribution, and judgments of well-being: Informative and directive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 513-5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Jordan. A.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8), 1096-1109.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moral psychology: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 Strack, F, Schwarz, N., & Gschneidinger, E. (1985). Happiness and reminiscing: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mood, and mode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6), 1460-1469.
- Sunstein, C. R. (2005). Moral heuristic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8(4), 531-573.
- Thomson, J. J. (1985). The trolley problem. Yale Law Journal, 94(6), 1395-1415.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0.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Waldmann, M. R., & Dieterich, J. H. (2007). Throwing a bomb on a person versus throwing a person on a bomb: Intervention myopia in moral intuitions. Psychological Science, 18(3), 247-253.
- Wood, J. V., Saltzberg, J. A. & Goldsamt, L. A. (1990). Does affect induce self-focuse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99- 908.

원고접수 : 09.09.15

수정접수 : 09.11.25

게재확정 : 09.12.11